

Rome 진단기준 II에 의한 골반저 조율장애의 진단에 있어서 항문직장각의 의미

순천향 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소화기연구소,
권광만*,이준성,임희혁,황경란,김성환,장근영,장재영,정인섭,홍수진,유창범,김진오,이문성,심찬섭,김부성

목적 : 항문직장 질환에 있어서 배변조영술은 배변시의 기능적 이상을 진단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지표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는 항문직장각(anorectal angle: ARA)의 임상적 유의성에 대해서는 최근 회의적인 시각이 많으나 아직 까지 많은 센터에서 임상적인 진단 지표의 하나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최근 기능성 항문직장질환에 대한 로마진단기준이 개정되었고(Rome II), 특히 배변조율장애(pelvic floor dyssynergia: PFD) 환자의 경우도 충족조건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배변조영술상 기능성 항문직장질환 중 PFD에 있어서 ARA의 진단적 의미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방법 :** 최근 3년간 직장수지검사, 검사실 검사,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기질적인 원인이 배제되었고 여러 가지 변비증상, 변실금 등의 배변장애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 229명의 항문직장 내압검사, 풍선배출검사, 근전도 검사, 대장통과시간 측정, 배변조영술 필름과 비디오 테잎 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했다. **결과 :** 로마진단기준에 따라 항문직장 생리검사에 근거하며 기준을 모두 충족시킨 PFD는 59명이었고, 후방 ARA 또는 중심 ARA의 휴지기와 배변시의 차이(Δ -ARA)를 기준으로 PFD로 진단할 경우 만족할만한 민감도와 특이도를 얻을 수 없었다.

PFD의진단	민감도(%)	특이도(%)	양성예측도(%)	음성예측도(%)
후방 Δ ARA < 15°	66.1	51.2	32.0	81.3
후방 Δ ARA < 10°	61.0	62.4	36.0	82.3
중심 Δ ARA < 15°	88.1	32.4	31.1	88.7
중심 Δ ARA < 10°	79.7	41.2	32.0	85.4

PFD를 만족하는 59명중 배변조영술상 subtype의 분류가 가능하였던 45명 중 puborectalis (PR) 형은 33명(73.3%), anal canal 형과 이 둘의 혼합형은 각각 6명(13.3%)씩 이었다. PR형 및 혼합형 PFD 39명만 보았을때 후방 Δ -ARA < 15° 기준의 민감도, 특이도, 양성예측도, 음성예측도는 각각 82%, 67%, 94%, 36%, 중심 Δ -ARA < 15° 는 97%, 50%, 93%, 75% 으로 진단율이 상승하였다. **결론 :** PFD 환자에서 배변조영술상 ARA 만으로 일반적인 PFD의 진단에는 무리가 있으나 배변조영술상 PR형 또는 혼합형인 경우 진단율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만성 변비 환자에서 바이오피드백 치료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분석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박도현*, 명승재, 양석균, 윤인자, 권오련, 고정은, 김태훈, 송혜경, 이진혁, 정훈용, 홍원선, 김진호, 민영일

배경 : 바이오피드백 치료는 만성 변비 환자 중 특히 골반저 기능의 장애가 있는 경우 치료 효과가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치료전 바이오피드백 치료의 효과 판정에 도움이되는 임상적 인자에 대해서는 아직 정립된 의견이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소화관 운동 검사 진단법의 발전과 변비의 병태생리에 대한 연구 결과가 축적되어 바이오피드백 치료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들을 재평가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피드백 치료를 시행받은 환자에서 치료전 치료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 서울아산병원 변비 클리닉에 만성 변비로 2001년 6월부터 2002년 6월까지 내원하여 바이오피드백 치료를 받은 11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M:F= 52:62, median age 56세).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일주일 동안 총 배변 횟수)를 이용하여 치료에 반응이 있는 군과 없는 군으로 분류한 후 각 군의 특징 및 치료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알아보기 위해 단변량 및 다변량 분석을 시행하였다.

성적 : 바이오피드백 치료에 효과를 보였던 환자는 85명(74.6%)이었다. 치료반응에 대한 단변량 인자 분석에서 치료 전 풍선배출 검사(p<0.05), defecation index (1.37 vs 0.63, p <0.05), straining시 anal residual pressure (49.8 vs 76.7mmHg, p<0.05) 등이 유의한 인자로 나타났고 다변량 분석에서는 defecation index (p<0.05)가 유의한 인자로 나타났다. 이외에 성별, 나이, 이외의 항문직장 검사 소견, colon transit time study등은 치료영향 판정에 영향이 없었다.

결론 : 만성 변비 환자에서 바이오피드백 치료 효과 판정에 도움을 줄수 있는 인자들을 알아보고 이러한 검사들을 잘 활용할 경우 바이오피드백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